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4 시·도민 모두가 홍보대사

주민 참여가 성공의 열쇠다

“지난해 경북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안동시의 저력은 전 공무원을 문화해설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시와 시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순복 조선대 법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은 ‘2008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성공의 관건으로 민·관으로 이뤄진 시민의 힘을 꼽았다.

그는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목표로 잡고 있는 국내 관광객 3천3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3만4천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솔선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솔선시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끌 시·도민의 자원봉사 등 역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가 관광도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문화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양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과 자체 강좌에 가정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강좌 등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설,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관광지에서 문화해설사로 나서 필요는 없지만,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이번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2002년 월드컵과 제88회 전국체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시민·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관광의 현장업무는 문화해설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민차원의 ‘불’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시민 김모(45·북구 문흥동)씨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



2008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절실하다는 여론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공무원들 문화·관광 마인드 기르고 자원봉사 참여 유도 프로그램 필요 시민들 뭉 조성...민·관 역량 모아야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에 지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수년 동안 전개해온 ‘내 나라 먼저보기’ ‘내 나라 사랑여행’ ‘구석 구석 캠페인’ 등을 벤치마킹, 지역 관광지를 지역민들이 먼저 찾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을 소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시·도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를 파견,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시민들이 굳이 현장 자원봉사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새로운 봉사의 개념으로 제기되고

있는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자원봉사와 결합된 여행 형태인 ‘볼런투어리즘’은 여행지에서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새로운 여행 개념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이같은 개념을 도입해 기류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태안반도에서 자원봉사할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난 19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광 환경과수꾼’ 제도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관현허브넷(www.etourkorea.com)을 중심으로 전국 유명관광지의 청결상태나 관광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도의 맛 이곳에서 즐기세요

광주시 ‘광주 1등 맛집’ 88곳 선정 발표

‘남도의 맛, 광주 1등 맛집에서 즐기세요’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가 남도음식의 체계적인 홍보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2기 광주 1등 맛집’ 88곳(표)을 선정,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13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객관화된 기준에 의한 예비 심사 이후 학계·협회·유통업계·언론인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2차례 본 심사를 거쳐 이들 업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음식 종류별로는 한식 22곳, 한정식 11곳, 소고기 13곳, 오리와 해물 각 9곳, 생

선화와 일식 각 8곳,돌솥·계장 5곳, 돼지고기 2곳, 양식 1곳 등이다.

선정된 음식점에는 오는 24일 지정서가 교부되며 광주시 관광포털사이트와 각종 관광홍보물에에도 게재된다. 시는 이들 업소가 광주의 대표 음식점으로서 품격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소양 교육과 관광안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은 “관내 음식점 가운데 전통 있고 솜씨가 뛰어난 예도 규모나 시설이 비좁고 낡아 탈락한 업소들은 별도 추천을 통해 ‘남도 별미집’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1등 맛집

Table with 7 columns: 음식종류,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음식종류,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Lists 88 restaurant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Seocho, Dongchun, and Gwangju.

Advertisement for '삼다 명품 선물세트' (Samsa Premium Gift Sets) featuring various food products and promotional offers.

Advertisement for 'SONY New BRAVIA' featuring a large TV and promotional text: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